

〈월하선전(月下仙傳)〉의 사건 형상화 양상과 작품 지향

-〈소설인규옥소선(掃雪因窺玉簫仙)〉과의 비교를 검하여

장예준*

〈차 례〉

1. 머리말
2. 형상화의 초점
3. 작품 지향과 의미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월하선전>의 사건 형상화 양상, 작품의 지향점과 의미를 논의했다.

<월하선전>의 작자는 황직경과 월하선이 최종 결연을 이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음 네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형상화했다. 먼저 황직경, 남진사와의 만남 과정에서 월하선의 지조를 부각했다. 그리고 월하선과 황직경이 재회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신의를 재확인했다. 또한 두 사람이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비교적 운이 따름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황직경의 장원급제, 월하선의 정렬부인에 봉해짐을 통해 굳은 지조와 신의가 결실을 맺고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작자는 작품 전반부에서 월하선의 정절 의식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작품 중반부에서 두 사람의 재회 이후 삶의 과정 형상이 월하선의 굳건한 정절 의식으로 수렴됨을 보이고, 작품 후반부에서 국가에서 월하선과 황직경이 기존 유교적 사회 범주로 복귀하는 것을 공인하고 표창함을 보임으로써 작품 전편을 통해 월하선의 굳은 정절 의식을 강조하려 했다.

19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으로서 <춘향전>, <월하선전>, <옥단춘전> 등 몇몇

*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한글소설 작품에서 상층 남성과 하층 여성(기생)이 어떤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하층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정절’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는바, 이것의 구체적인 양상과 시대적 의미, 문학사적 의미를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월하선전>은 단순히 <춘향전>의 아류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소설사의 한 양상을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월하선전(月下僊傳)>, 옥소선(玉簫仙) 이야기, <소설인규옥소선(掃雪因窺玉簫仙)>, 옥소선(玉簫仙), 정절의식, 지조, 신의, 19세기 중단편소설.

1. 머리말

<월하선전(月下僊傳)>은 1876년에 필사된 유일본으로 전해지고 있는 작자 미상의 소설 작품으로, 박성익이 처음 소개¹⁾한 후, 김기동의 필사본 영인 및 해제 작업²⁾, 이강용의 작품 소개 및 교주 작업³⁾ 등이 이루어졌다. 이후 이 작품은 작품의 생성 배경, 갈래 교섭 및 문학사적 의의, 인물 형상화의 의미와 주제 의식, 텍스트의 성격 등의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작품의 생성 배경에 대해서 <월하선전>의 생성 배경을 여성 인물 야담 측면에서 살핀 이신성의 연구⁴⁾가 있다. 김준형은 갈래 교섭 및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고찰했다. 그는 <월하선전>이 야담과 소설의 교섭 양상을 보여주는 예로서 인과성의 긴밀함이 떨어져 완전한 소설은 되지 못했지만, 야담 갈래를 부정하며 문학적 형식에서의 관습성(conventionality)에 따라

1) 박성익, 「월하선전(月下僊傳) 소고」, 『고대신문』, 1962. 6. 23.

2) 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21』, 아세아문화사, 1980.

3) 이강용, 「「월하선전」 연구」, 『배달말』 10, 배달말학회, 1985, 307~332쪽; 이강용, 「교주 「월하선전(月下僊傳)」」, 『배달말』 10, 배달말학회, 1985, 333~348쪽.

4) 이신성, 「<옥소선(玉簫仙) 이야기>와 「월하선전(月下僊傳)」 연구」, 『한자한문교육』 8,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2, 240~289쪽.

소설의 형태를 빌어 오면서 새로운 소설을 창출하는 모험을 감행했다고 보았다.⁵⁾ 이어 그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소설과 야담을 혼효한 작품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양상은 당시 서사문학사의 한 양태로 야담이 소설적인 경사를 보이면서 자기갱신·자기발전의 양상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월하선전〉 역시 그러한 흐름 속의 결과물이라 했다.⁶⁾

조광국, 서혜은은 인물 형상화의 의미와 주제 의식을 고찰했다. 먼저 조광국은 〈월하선전〉과 연관이 있는 자란 설화를 분석했다. 그리고 기녀 제도 및 풍속을 바탕으로 〈월하선전〉의 구조와 현실 저항의 의미, 소설사적 의의 등을 논의했다. 즉 〈월하선전〉은 기녀의 주체적인 애정 욕구를 그림으로써 자유로운 애정 욕구, 중세 신분 사회의 질곡에 대한 저항, 기녀의 인간적 존엄성 회복에 대한 열망을 담은 작품으로, 〈춘향전〉, 〈옥단춘전〉과 함께 인간 평등의 근대정신을 구현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⁷⁾ 서혜은은 〈춘향전〉, 〈월하선전〉, 〈옥단춘전〉, 〈유록전〉, 〈채봉감별곡〉, 〈강남홍전〉, 〈화옥쌍기〉를 대상으로 기녀의 애정 성취 기반과 의미를 고찰했다. 이를 통해 기녀가 기녀 신분 자체에 대한 불합리성과 인권에 대한 각성, 천민 여성으로서 양반 남성들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능력을 소유, 당대 독자들에게 당대 여성들의 애정에 대한 욕구나 욕망 내지는 소망을 부여한 존재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⁸⁾

필자는 〈월하선전〉의 하이퍼텍스트성 양상과 성격을 고찰했다. 〈월하

5) 김준형, 「〈옥소선(玉蕭仙) 이야기〉의 변이양상과 의미」, 『한국민속학』 30, 한국민속학회, 1998, 265~288쪽.

6) 김준형, 「근대 전환기 〈옥소선 이야기〉의 개작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207~209쪽.

7) 조광국, 「『월하선전』 연구」, 양포이상택교수환력기념간행위원회,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 집문당, 1998, 627~655쪽; 조광국,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285~303쪽.

8) 서혜은, 「고전소설에 나타난 기녀의 애정 성취 기반과 그 의미」, 『어문론총』 42,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217~244쪽.

선전>의 하이퍼텍스트성은 화소의 모방, 화소의 부분 수용 및 혼합, 모티프를 활용한 사건 창조 등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며, 패스티쉬 성격을 지닌 하이퍼텍스트로서 독자적인 주제 의식을 지닌 작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⁹⁾

이상 선행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월하선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문학사적 의의는 규명된 상황이다. 그런데 선행 연구가 전근대 사회 속에서 근대를 향한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를 근대화나 근대정신에 연결을 짓는 당시 연구 경향 아래 나온 것임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주제 의식 연구는 역사적 실상과 맞지 않거나 과장된 평가를 내렸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소설 속 비현실적인 결구를 곧장 당대 현실 인식의 반영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곧 이 작품의 내용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작품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논문에서는 <월하선전>의 사건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고, 작품의 지향점과 의미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옥소선 이야기> 중 가장 서사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천예록(天倪錄)』 소재 <소설인규옥소선(掃雪因窺玉簫仙)>과 비교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형상화의 초점

1) 월하선의 지조(志操) 부각

남녀 주인공이 서로 인연을 맺게 되기까지 과정을 서술하면서 <소설인규옥소선>에서는 두 사람의 정이 쌓이고 그 정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양상

9) 장예준, 「<월하선전(月下僊傳)>의 하이퍼텍스트성(hypertextuality)」,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0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6, 219~241쪽.

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월하선전〉에서는 두 사람의 정이 쌓여가는 과정보다는 월하선의 지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술된다.

〈소설인규옥소선〉에서는 평양감사가 자신의 아들 생일을 맞아 벌인 연회에서 감사 아들과 자란(옥소선)은 처음 만난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감사는 아들에게 일어나 춤을 추도록 하면서 연회의 흥겨움을 더하고자 아들의 짝이 되어 함께 춤을 출 동기(童妓)를 추천하게 한다. 기녀들과 감영 사람들이 자태가 어여쁘고 기예도 뛰어난 동갑내기 자란을 추천하자 감사는 자란에게 함께 춤을 추도록 한다. 가볍고 부드러운 두 사람의 춤사위에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감사도 크게 기뻐하면서 자란을 불러 술상 앞에 앉혀 요리를 들게 하면서 상도 크게 내린다. 그리고 앞으로 쪽 아들 옆에서 시중을 들라고 한다. 이때부터 자란은 항상 감사 아들의 시중을 들며 그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¹⁰⁾

두 사람의 나이는 12살, 이성에 눈을 뜨기에는 아직 약간 이른 나이이다. 두 사람은 늘 함께 지내고 장난치고 놀면서 그들 스스로도 모르게 정이 쌓여간다. 감사의 임기가 보통 2~3년임을 감안하면, 두 사람은 일단 15살이 되는 해까지 함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곧 서로 친구로서의 우정으로만 생각하던 두 사람이 점차 서로를 이성으로 의식할 만한 시기에 도달한 것

10) 『천예록』 소재 〈옥소선 이야기〉의 원문과 번역문 인용은, 각각 ‘정환국 책임편집, 『교감표점 정본 한국야담전집 2: 천예록 매옹한록 이순록』, 보고사, 2025’와 ‘임방지음, 정환국 옮김, 『천예록』, 보고사, 2023’을 활용한다. 인용 시 작품명과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눈을 쓸다가 옥소선을 엿보다〉, 96~97쪽.

“按使適值懸孤之日，與賓僚置酒於秋香堂，大張妓樂，酒酣歡甚。乃命兒郎起舞，呼首妓，擇於童妓中一人，使之對舞，以爲戲笑之資。衆妓及營中上下，以紫鸞芳姿妙藝，可敵兒郎，又其年齒，適與同庚，遂使應命，一雙妙舞，嫋嫋如弱柳，翩翩若輕燕。坐上見者，莫不贊嘆，稱其奇絕。按使大悅，招紫鸞，命坐於床頭，饋以肴饌，復以錦綺，厚加賁賞，仍命以紫鸞，永定兒郎陪妓，以供進茶磨墨之役。自是，恒不移左右，與之同遊戲。及數年之後，男女年長，遂相親昵，兩情俱惑，綢繆纏綿，不翅若鄭生之於李娃也，張郎之於鶯鶯也。”〈掃雪因窺玉簫仙〉，47쪽.

이다. 그래서 서술자는 “둘 다 나이가 들고 마침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고 한 것이다. 게다가 감사는 임기가 만료 되었음에도 선정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그를 평안감사로 다시 임명하는 바람에, 총 6년 즉 두 사람의 나이가 18살이 되는 때까지 서로 어울리며 다니게 된다.¹¹⁾ 이미 깊어진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으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소설인규옥소선>에서는 감사 아들과 기녀 자란이 우연한 계기로 만나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정을 쌓아나가다 사랑으로 감정이 바뀌고, 그 사랑이 갈수록 깊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1) 소인은 몸은 비록 천인이오나 마음은 그러치 아니흐와이다. 서방님 겨오셔는 직상되 귀공조로셔서 청춘 용의 올라 나라를 돕습고 문호를 빚을 몸이시니 엇지 조고마흔 아녀즈를 침혹하여 사또 안전의 불효를 미치오며 또한 서방님이 미취 전 아회일시 경욕을 참지 못하여 이러타시 호교호오시나 인연을 밋진 후 한번 써나 가오시면 일시 노류창화로 아오시고 심두의 뉴렴도 아니호실거시오 또 숙여의 부인을 어더 빅년히로 호오실시 소인의 신세는 생각도 아니호오실 거시오 소인은 한번 몸을 허한 후는 아모리 천인이라도 정절 곳치지 아니 호을 마음이 금석 갓스오니 서방님을 한번 니별호은 후의 청춘을 허송호고 흥안 박명을 슈절일시 뵈 방만 즉힐지라. 이러무로 존명을 좇지 못흐나이다.¹²⁾

(2) 소인의 목숨은 사또 안전의 밋엇거니와 일편단심은 임의로 겨지 못호을 거시오 그러나 강 호신 황판서 덕감 조제 서방님그 임의 몸을 허호엿스오니

11) “按使秩滿，朝廷以其有惠政，復令仍任，凡六年而始解。”(<掃雪因窺玉簫仙>, 47쪽.)

12) 앞으로 <월하선전> 인용은 ‘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21』, 아세아문화사, 1980’을 활용한다. 그리고 인용 시 면수만 기재하기로 한다. 이강용의 교주본도 참고했으나 오류가 제법 보인다.

<월하선전>, 394~395쪽.

엇지 간스한 말노써 알외오리잇가. 계집의 절기는 양반 상인이 업슬느니라. 옛날 초왕의 딸 공주로 어려슬 제 기충의 조절 직희엿스오니 예부터 충신과 열여는 귀천상하간니 업스오니 소인니 비록 천인이오나 정절은 가져사오니 죽기를 앓기지 아니흐나이다. 비록 죽기는 쉽거니와 뜻 변치 아니흐나니 진사님 처분디로 호옵소서.¹³⁾

〈월하선전〉에서는 함경감사 아들 황직경이 도임 3일 만에 자색이 뛰어난 기생 월하선을 만나서는 곧장 하룻밤 인연을 맺자고 제안한다.¹⁴⁾ 이에 월하선은 감사 아들의 처지, 지조를 지키려는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거절한다. 먼저 월하선은 황직경은 재상택 귀공자로서 젊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하여 임금을 보좌하고 집안을 빛낼 분인데, 자신 같은 천한 여자에게 깊이 미혹하여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려 하냐고 말한다. 또 황직경이 지금 일시적인 정욕을 참지 못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만약 자신과 인연을 맺은 후 떠나고 나면,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백년해로하게 되면 자신을 그저 창기(娼妓)로 여기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이어 그녀는 자신은 천인이지만 한번 몸을 허락하면 정절을 지킬 마음을 굳게 갖고 있는데, 한번 이별하고 나면 자신은 좋은 시절을 헛되이 보내며 빈방을 지키며 수절하게 될 것이라 말하며 황직경의 요구를 거절

13) <월하선전>, 398~399쪽.

14) “잇썩에 함경감스 황판서라 호는 양반이 식로 내려와 도임호을 식 한 아들을 가져왔시되 나흔 십스세요 일흠은 직경이라 도임 삼일 만의 직경이 형슈랄 불너 무른 디, ‘이 성동 닉에 계싱 뉘 용피 아람다오뇨?’ 형슈 디답하디, ‘이 성동의 월하선이라 호는 리 잇습는디 용피 이에서 지나 리 업슬가 호나이다.’ 직경이 즉시 월하선을 부르라 호니 형슈 월하선을 다려다가 뵈온디 직경이 호변 보미 아름다운 티디 인간의 처음이라. 반겨 문왈, ‘네 일흠은 무어시며 나흔 몇치뇨?’ 호니, 월하선니 디왈, ‘소첩의 늑은 십스세요 일흠은 월하선니르소이다.’ 직경이 왈, ‘난 화용 풍경을 구경치 못호 었더니 금일이야 풍경 구경하다가 너갓튼 어엿분 주식을 보고 었지 마음을 진경호리요. 닉 지금 미취 전니요 또한 소연니라. 한번 니연을 미즈미 었더호요.’” <월하선전> 393~394쪽.

한다.

결국 황직경은 월하선의 정절을 매우 기특하게 여기면서 자신은 월하선의 뜻과 함께하며 변치 않겠다고 말한 뒤, 월하선의 모친 소운의 집으로 가서 제문을 지어 자신의 사랑이 변치 않을 것임을 하늘에 맹세한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인연을 맺고,¹⁵⁾ 이후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그 후 황직경은 임기가 만료되어 떠나는 부친을 따라 한양으로 올라가고, 새로 남감사가 부임해 온다. 이때 따라온 아들 남진사는 도임하자마자 월하선을 불러 곧장 인연을 맺으려 한다. 그러자 월하선은 자신의 신세는 비록 관아에 매인 몸이지만 일편단심은 꺾지 못할 것이라 하고는 자신은 이미 전 감사 황판서 대감의 자제에게 몸을 허락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여자의 정절은 양반 상인 구별이 없으며 열녀는 귀천의 구별이 없으니, 자신은 비록 천인이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정절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남진사의 명을 거절한다. 이로 인해 월하선은 남진사에게 난장(亂杖)을 맞고 책방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월하선전>의 작자는 성급하게 인연을 맺기를 요구하는 남성 인물들의 모습과 정절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히며 요구를 거절하는 월하선의 모습을 대비하여 그려냈다. 그럼으로써 월하선의 굳건한 정절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작자는 황직경이 월하선과 이별하기 전까지 다른 사건은 서술하지 않고, 심지어 황직경과 월하선의 사랑이 깊어가는 과정을 매우 소략하게 처리¹⁶⁾했다. 이는 사실 소설 구성면에서 세련된 방식은 아니

15) “(전략) … 아미를 숙이고 종시 듯지 아니헛거날, 직경이 빙번 기유히여 왈, ‘네 말을 드르니 정절이 더욱 기특흔지라 님 사부의 즈손으로 네 말과 갓치 헛리라. 비록 헛날 이 거늘고 싸히 느러져도 님 뜻도 네 말과 갓치헛여 변치 아니 헛리라.’ 언필의 소운의 집의 가 제문지어 헛늘고 밍세헛고 길희 침석을 한가지로 헛니라.” <월하선전>, 395쪽.

16) “이러구러 피초의 경이 틈산 갓타여 원낭이 뉴슈를 만남 갓타며 비취연니 갓드림 갓하여 일흠으로 일시일각도 써나지 아니 헛터라.” <월하선전>, 395쪽.

지만, 작자가 작품 전반부에서 이미 이 작품의 방향이 두 사람의 애정보다 월하선의 정절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신의(信義) 재확인

〈소설인규옥소전〉, 〈월하선전〉 모두 자란, 월하선을 그리워하던 전 감사 아들, 황직경이 각각 홀로 평양, 함흥에 있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녀의 어미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한다. 그리고 구실아치·관노 축성을 찾아가 자란, 월하선의 얼굴을 볼 계책을 묻는다.

〈소설인규옥소전〉에서 전 감사 아들은 다음날 산정(山亭)으로 가서 앞 뜰에서 비를 들고 눈을 쓰는데, 건장한 인부들 틈에서 홀로 서툴게 비질하며 남들보다 한참 뒤쳐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만다. 마침 현 감사 자체가 그 광경을 보다가 자란을 불러 그 광경을 보게 한다. 그때 전 감사 아들은 털로 짠 모자를 걷어 올리며 앞으로 지나가면서 자란을 쳐다본다. 자란도 한참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곧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¹⁷⁾

〈월하선전〉에서도 다음날 황직경이 책방 뜰을 쓸며 기침했으나 책방에 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날이 늦도록 뜰을 쓸다가 홀연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는 그곳을 바라보니 월하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황직경은 초채하기 짝이 없는 월하선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진다. 두 사람은 서로 한동안 멍멍히 바라보다 월하선은 문을 도로 닫고 들어가고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¹⁸⁾

17) 〈눈을 쓸다가 옥소전을 엿보다〉, 101쪽.

“早朝與衆役夫，入山亭，携箒掃雪於前庭。巡使之子，方開窓倚門坐，鸞妓在房，不得見矣。他役夫皆丁壯，掃雪甚健，生獨用箒齟齬，不及於他人，巡使之子，見而笑之，仍呼鸞妓，使觀之。鸞自房中，應命而出，立于前軒。生捲其氍毹，前過而仰見之，鸞熟視良久，即還入房中，而閉其門，從此不復出矣。生遂慙然悵悵，而歸于吏舍。” 〈掃雪因窺玉簫仙〉, 49~50쪽.

이렇게 전 감사 아들과 상대가 잠깐 얼굴을 마주하는 장면은 세부적인 묘사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열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두 사람이 얼굴을 잠깐 마주하는 장면이 그려진 후 자란과 월하선의 모습이 서술된다는 점도 동일한데, <소설인규옥소선>은 매우 간략하게 서술되어 작품 맥락을 통해 추측하도록 하는 데 반해, <월하선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소설인규옥소선>에서는 전 감사 아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바로 알아채 자란은 아무말 없이 눈물만 흘린다. 두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정이 쌓여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던 터인데, 막상 이별할 때에 전 감사 아들이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에 자란으로서는 몹시 서운하고 마음이 상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양으로 올라간 전 감사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며 새로 온 감사 아들의 시중을 들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전 감사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순간, 자란은 전 감사 아들 역시 그동안 자신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3) 초설 잊혀의 월하선니 주야로 직경만 싱각고 죽을 마음만 잇더니 홀런 창 밧기서 직경의 기춤소리를 듯고 쏜인듯 상신듯 정신이 혼미혔었다가 겨오 인스를 출혀 춤밧는 체하고 문을 열고 즈세 보니 과연 직경이 뷔를 들고 쓸을 쓸거날 마음의 혜오되, ‘낭군니 날을 위하여 차즈왔도다.’ 하고 반갑고 깃븐 마음

- 18) “시벽되미 빅설이 만나 오느니라, 축성의 옷술 밧고와 입고 뷔를 들고 칙방의 드러가 쓸을 슬며 기참호되 마춤니 소식이 망연흔지라 더욱 망극호여 만스의 무심호나 마음을 진정호여 날이 늦도록 쓸을 쓰려니 홀연 청상의셔 서문 여난 소리 느거늘 직경이 정신을 가다드마 바라보니 월하선니 문을 열고 유의호여 보거늘 직경이 바라보니 얼굴이 초취하고 퇴되 소삭호여 원앙이 짝을 일은 듯하고 월식이 구름 속의 썩흔듯 하며 모란니 풍우를 만남 갓호여 허튼 귀 밧티 시름호는 거동이 더욱 직경의 간장을 식로느니라. 피츠 막막히 서로 보다가 월하선니 문을 도로 다드니 직경이 혜오되 불승 아연호나 힘혀 타인니 알가 호여 머리를 숙이고 다른 동미 다 나가도록 눈을 쓸며 다시 나오기를 기다려도 일고삼장토록 다시 동경이 업느니라.” <월하선전>, 404~405쪽.

이 측냥 엄스나 형혀 타인니 알가 햐여 문을 즉시 닫고 안즈니 정신니 황홀햐여
싱각햐되, ‘직경씨야 엇지 님 마음 이런 줄을 알니요 슬프다, 님 죽으면 천금갓
탄 양반의 몸이 천년의 외로운 혼백이 되리로다.’ 햐고 갑흔 마음을 정햐고 즈리
의 누어 이지 아니 햐더라.¹⁹⁾

〈월하선전〉에서 월하선은 창밖에서 나는 기침 소리에 황직경이 왔음을
직감하고 꿈인 듯 생시인 듯 정신이 혼미하다가 침 벨는 척하면서 문을
열어보고 과연 황직경임을 알아보고는 마음속으로 한없이 반가워하고 기
뻐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책방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신의 신세를 떠
올리며 황직경이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냐고 하면서 만약
자신이 죽으면 황직경은 객지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한탄한다.
월하선으로서는 황직경이 한양으로 올라간 후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
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설령 황직경의 마음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관기
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키며 지낼 뿐이
였다. 그런 상황에서 황직경이 자신을 한번 보겠다고 멀리 한양에서 함흥
까지 달려온 것을 확인한 이상, 월하선은 황직경 역시 자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또한 <소설인규옥소선>, <월하선전> 모두 구실아차·관노 축성의 집에
서 두 사람이 재회한 순간을 극적으로 그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월하선
전>은 뜰에서 서로 눈이 마주친 뒤 월하선의 마음을 오해하고 크게 낙담해
있는 황직경의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잠시 엇갈리
는 듯한 두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어머니에게 원망을 늘어놓던 월하선은 문득 황직경이 축성을 아꼈던 것
을 생각해 낸 월하선은 황직경이 거기에 있으리라 짐작하고 집안 보화를
싸 품에 품고 축성의 집으로 달려간다. 과연 그곳에 황직경이 얼굴을 소매

19) <월하선전>, 405~406쪽.

로 가린 채 누워서 베개에까지 눈물이 떨어질 정도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황직경은 앞서 자신을 알아보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문을 닫고는 다시는 모습을 비추지 않은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낙담한 터였다. 월하선이 전혀 반기는 모습이 없었기에 자신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축성의 집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서로 그간의 회포와 자초지종을 이르며 기뻐하고 눈물을 흘린다. 잠시 마음이 엇갈린 듯했던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서로의 사랑과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기에 이른다.²⁰⁾

<소설인규옥소선>과 <월하선전> 모두 자란과 월하선이 각각 현 감사 아들에게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와 전 감사 아들의 행방을 물으며 어머니에게 항변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소설인규옥소선>이 <월하선전>보다 훨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그녀들이 항변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각 작품이 무엇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소설인규옥소선>에서 자란은 자신이 전 감사 아들을 저버릴 수 없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첫 만남은 남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이는 하늘이 맺어준 짝이라는 것이다. 둘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지금, 그 정과 마음은 어디에 비할 데가 없을 정도여서 자신이 죽는다고 해도 이를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전 감사가 미천한 자신을 자기 아들의 배필로 생각하여 마음 깊이 어루만져 주고 큰 은덕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다. 넷째, 자신은 평소부터 전 감사 아들의 국량과 기품, 글재

20) “즉시 축성의 집으로 오니 과연 직경이 사미로 낮을 덮고 더진다시 누어 눈물이 벼기의 이음찰는지라 비희교집혀 급히 직경을 붓들고 오열체읍하니, 직경이 몽미뺏 만나 어리듯 취흔듯 붓들고 슬허헝기를 마지 아니하며 두리 안즈 서로 그리든 회포를 이르고 슬프며 깃브움을 이기지 못하여 직경이 왈, 처가로서 삼일 만의 집으로 오다가 그리오를 참지 못하여 도망하여 천신만고하여 오던 말과 전후수말을 이르며 옥빈 흥안의 뉘쉬방방 하여 옷깃을 적실 줄 씌닷지 못하여 흐거날 … (후략).” <월하선전>, 410쪽.

주를 높이 사 그를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자신은 미천한 존재임에도 전 감사 아들은 오로지 자신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 왔으니, 더욱 그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란은 어머니에게 우리가 전 감사와 아들에게 받은 정과 은혜가 두터우니 응당 자신이 해야 할 도리가 있음에도 그리 야멸차게 대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린다.²¹⁾

자란은 전 감사와 아들이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와 은덕에 대해 언급하면 서도 전 감사 아들과 자신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점, 자신이 그를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점, 자신이 그리워 자신을 찾아온 전 감사 아들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한다. 즉 <소설인규옥소선>은 자란과 전 감사 아들의 사랑과 정에 크게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월하선전>에서 월하선은 어머니에게 어찌 그리도 무심하게 대했냐고 하면서 황직경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고, 우리집 기물들도 다 황직경이 해 준 것이며, 하물며 자신을 보겠다고 먼 거리를 찾아온 사람에게 어찌 언약을 저버릴 수 있느냐며 항변한다.²²⁾ 이는 <소설인규옥

21) “鸞呼泣而責其母曰, ‘此非人理所可忍爲, 而母何以忍爲之耶? 吾與此郎君, 年既同庚而十二歲, 當壽宴獻舞之日, 一營上下, 舉吾而爲對舞, 雖曰‘由人’, 而實是天作之配, 此吾之不可背者一也. 自是以來, 未嘗一日離其左右, 以至於長成, 仍而有私焉, 則相愛之情, 相得之樂, 求之古今, 絕無比矣. 郎雖有忘於妾, 妾抵死而難忘焉, 此吾之不可背者二也. 前使道以吾謂爲愛子之婦, 不以賤微而有間焉, 撫恤之深, 賜賚之厚, 恩德如天, 世所罕有, 此吾之不可背者三也. 箕城地當孔道, 縉紳貴流, 往來如織, 吾見人多矣, 器稟之英秀, 才華之敏瞻, 未有如此郎君者. 吾素有絲蘿托從之意, 此吾之不可背者四也. 郎雖棄吾, 吾不可負, 而吾無狀, 不能以死自守, 爲威勢所脅制, 今復獻媚於新人郎君, 何有於無行之一賤物, 而不遠千里徒步而來? 此吾之不可背者五也. 非徒此也. 郎君是何等貴人, 而爲一賤娼, 顛倒狼狽而至, 則在我之道, 何忍忽視? 吾雖不在, 母氏獨不思前日眷恤之情贈遺之恩, 而不進一器飯以留之耶? 此非人理所忍爲, 而吾母忍爲之, 吾亦安得不自痛耶?’” <掃雪因窺玉簫仙>, 50~51쪽.

소선>에서 자란이 언급했던 다섯 가지 이유 중 다섯 번째 것과 여기에 덧붙여 어머니에게 추가로 항변한 내용만이 서술된 것이다. 전 감사 아들에 대한 자란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언급들은 모두 빠졌다.

<월하선전>의 이 장면은 황직경이 떠난 이후에도 월하선이 황직경이 베푼 은혜와 그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분명 사랑하는 사이였음이 분명함에도 이는 애써 뒤로 감추어버렸다. 즉 <월하선전>은 월하선과 황직경의 사랑보다 월하선의 신의, 지조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 비교적 운이 따르는 생활

<월하선전>에서도 황직경과 월하선의 도피 후 생활이 자세하게 그려진다. 그런데 <소설인구옥소선>과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4) 밤이 깊어지자 모친이 깊이 잠든 틈을 타 둘은 싸놓은 짐을 함께 짊어지고 몰래 달아났다. 둘은 여기저기 거친 끝에 양덕(陽德)·맹산(孟山)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한 촌가 백성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남의 집 품팔이를 하였다. 생은 허드렛일에 서툴러 할 수 없었으나, 자란은 자수와 바느질 솜씨가 좋아 겨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 이들은 마을 안에 두어 칸짜리 집을 마련하였다.

자란이 워낙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길쌈과 바느질에 부지런한 데다, 필요할 때마다 가져온 비단 옷가지와 가락지 등 패물을 팔아 생을 이바지하였기에 먹고 입은 게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또 이웃들에게도 처신을 잘하여 저들의 환심을 얻었다. 사방 이웃들은 막 흘러 들어와 어렵게 사는 딱한 처지를 보고

22) “월하선니 가로되, ‘엇지 보닛신잇가. 쏘 석반나나 각별이 디접히고 편이 머무시게 하올거시여늘 엇지 그리 무심히 하시니잇가. 이 집안 스람이 지금까지 사라가는 거시 그 양반의 덕이요, 님 집 괴물이 다 그 양반의 괴물이요 하물며 설상의 불원천니 하고 츠차 왔거늘 차마 엇지 언약을 바리시닛가.’” <월하선전>, 409쪽.

안쓰러워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마침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²³⁾

〈소설인규옥소선〉에서 평양을 떠난 전 감사 아들과 자란은 양덕(陽德)·맹산(孟山)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터를 잡는다. 그들은 일단 한 촌가 백성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야만 했다. 그나마 자란이 자수와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입에 겨우 풀칠할 정도였다. 그래도 갖은 노력 끝에 두 사람은 두어 칸짜리 집을 마련했다. 그 후로도 자란이 부지런히 길쌈과 바느질을 하고 종종 집에서 가져온 패물을 팔아 생계를 꾸려서 먹고 입는 것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또한 자란은 이웃에게도 처신을 잘하여 환심을 샀고, 이웃들은 두 사람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었다. 그 덕분에 살림이 편안해졌다. 작자는 이들이 깊은 산골로 숨어들어가 자리를 잡기까지 그야말로 갖가지 고생을 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란의 내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부각했다.

궁벽한 산골에 살고 있다 보니 자란은 전 감사 아들이 과거 공부에 필요한 책을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자란이 주변 이웃에 이야기하여 값을 따지지 않고 책을 사겠다고 했지만, 한참이 지나도 책을 구입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책 한 권을 팔려는 행상이 나타났고, 마을 사람이 벽지로 쓰려고 책을 사려 했다. 그때 자란이 그것을 얻어다가 전 감사 아들에게 보여주었고, 그가 이 책이면 충분하겠다고 기뻐하자 곧장 그 책을 구

23) 〈눈을 쓸다가 옥소선을 엿보다〉, 104쪽.

“夜深, 乘其母睡熟, 兩相負戴, 潛逃以去. 轉入陽德·孟山深峽之中, 寄託於村氓之家, 初爲其傭賃, 生不能鄙事, 鸞工於織紵針繕, 以糊其口, 稍久, 仍結數間茅舍於村中以居. 鸞勤於女工, 晝夜不懈, 且時賣所賣衣裳釵佩, 以供喫着, 能使不致乏絕, 鸞又能善處隣里, 俱得其歡心, 四隣之人, 見其新寓貧窮, 莫不憐而周救, 遂得安巢焉.” <掃雪因窺玉簫仙〉, 51~52쪽.

입해 온다.²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책을 구할 수가 없는 곳임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면서 자란이 우연한 기회를 잡아 비로소 책을 구했음을 형상화했다. 이 역시 자란의 내조와 고생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다.

(5) 월하선니 직경과 만세교를 건너 큰 길을 바리고 북녘으로 향하여 오로촌을 나뉘며 가는 등의서 밤을 연하여 지내고 삼일 만의 겨유 산영을 너무려 하니 잊지 동한나라. 설봉이 높히 불고 천산니 높고 길이 흠악흔지라 겨유 흥하여 초낙을 어더 안돈하나 창히망연하여 슈랄 노화 팔고져 하여 흥비를 노화 가지고 물식 아는 곳의 가지고 가 팔아서 다시 가산을 일우리라 하고 즉시 평양저지의 드러가니 양주장사 최진필은 물식 알기 옛날 도적서 더 나은 사람이라. 이 흥비를 보고 크게 놀나 왈, “이 흥비는 어딴서 나온지 옛날 숙낭지 슈를 노화니니 세상의 처음이라.” 하더니 또 “이 슈법은 그에서 더하니 갑술 못지 아니 하노라.” 하고 빅금을 주며 왈, “세상의 숙낭지 또 낫도다” 하며 흥비 는 곳을 알고져 하더라. 월하선니 그 금을 가지고 가 장을 준비한 후의 직경과 희희낙낙하여 하더라.²⁵⁾

이에 비해 <월하선전>에서는 황직경과 월하선이 거쳐할 곳을 찾기까지 한겨울에 고생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들의 고생보다는 그들이 생계를 꾸려가는 데 어느 정도 운이 따르고 있음이 부각된다. 황직경과 월하선이 도피 생활 과정에서 온갖 고생을 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서 운이 따른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이 안락하고 평안하고 부유해서가 아니다. <소설인규옥소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운이 따르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고, 실제 생활도 고생스럽지만 비교적 순탄한 모양새

24) “自是, 鸞言于四隣, 不計價購書, 而窮山僻村, 久未得書. 一日, 忽有行商過去者, 持一卷書以賣, 村人爲其塗壁欲買, 鸞得之以示生, 乃東方近代表箋科製, 而細書成文, 冊大如斗, 殆數千首. 生見之喜, 曰, ‘此一卷, 足矣!’ 鸞即買取付生.” <掃雪因窺玉簫仙>, 52~53쪽.

25) <월하선전>, 412~413쪽.

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평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혹 바느질을 잘하여 수를 놓아 평양에 나가서 팔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는 그들이 일을 하든, 물건을 팔거나 구하든 크게 어렵지 않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월하선은 흥배를 놓아 평양 저자에 가서 팔려고 하는데, 작자는 <숙향전>의 장면을 가져와 월하선이 흥배를 놓은 솜씨가 매우 뛰어나 백금에 팔고 돌아오는 양상을 그려 놓았다. 일단 그들이 자리잡은 곳이 마침 사람이 많이 오가고 물산이 풍부한 평양이 근처인 곳이었다는 점, 월하선이 숙향에 비견될 만한 자수 솜씨를 지녔다는 점, 그 솜씨를 금세 알아보는 장사꾼을 만난 점 등은 그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크게 곤란한 상황이지는 않았으며, 비교적 운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하선이 과거 준비를 위한 서책을 구하는 장면 역시 그러한 면모를 보여준다. 월하선은 서책이 있는 곳을 탐문하다 마침 행화촌에 성관관 댁 부인이 흥배를 구한다는 말을 듣는다. 이에 월하선은 청학, 백학을 수놓아 성관관 댁을 찾아간다.²⁶⁾ 그리고 월하선이 흥배를 내놓자 부인은 “이느 너의 소원이라. 용이 여의주를 만남 갓호니 이는 하늘이 지시하시미라.”²⁷⁾ 라고 할 정도로 몹시 기뻐한다. 이어 서책을 구하여 깊이 읽고 싶다는 월하선의 말에 부인은 여러 대에 걸쳐 자기 집안 사람들을 등과하게 해준 서책을 선뜻 내어준다.²⁸⁾ 이 장면 역시 월하선이 구하는 일이 우연한 기회를

26) “월하선니 이후부터 서책 잇는 곳을 심방 드르니 행화촌니라 호는 성관관 댁이라 호는 낭반이시되 그 관관니 일죽 죽고 관관의 아들이 잇서 일죽 급제호여 능취 목스 호였는지라. 흥비 구한단 말을 듣고 청학백학을 슈노화 가지고 그 댁을 츠자가 명함을 드리고 드러갈 식 ... (후략).” <월하선전>, 413~414쪽.

27) <월하선전>, 414쪽.

28) “월하선니 디왈 ‘소첩이 비록 여지오나 서책을 잠심코져 호는 고로 응당 귀댁의 서책이 만니 잇슬듯 호오니 한벌을 주요심을 크게 바라는 비요, 흥비갑슨 달계 녀이지

통해 용이하게 해결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두 사람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운이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장면을 더 들어보자. 황판서의 아우 황제가 마침 우연하게도 평안도 사에 임명되어 부임지로 향하던 중 비로 인해 행화촌에 머물게 된다. 그러다 홀연 청아한 글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갔다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조가 황직경을 만난다. 서로 한바탕 통곡한 후 황제는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듣는다.²⁹⁾ 그리고 황제는 두 사람을 임소(任所)로 데려가 그곳에서 머물며 공부에 전념하도록 할³⁰⁾ 뿐만 아니라, 이듬해 3월 과거를 보도록 황직경에게 한양으로 올라갈 때 쓸 행장도 마련해 준다. 이 장면도 작자가 도피 후 두 사람의 생활에 운이 따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월하선전>에서 황직경과 월하선의 도피 생활을 그린 부분을 보면, 두 사람이 갖은 고생을 하는 장면보다 두 사람에게 비교적 운이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 <소설인규옥소전>처

아니 흥나이다.’ 부인 왈, ‘서척이 있스나 우리 집의 여러 티를 내려오며 등과하여 일흠이 용문의 빗나게 흥는 거시오미 실노 등논한 거시나 임의 서척을 짐심하여 등과하였시니 그티를 주려니와 이런 정을 잊지 마르소서.’ 흥고 안호로 드러가더니 이윽고 책을 নিয়ে 오거날 월하선니 바다가지고 즉시 하직하고 … (후략).” <월하선전>, 415쪽.

29) “즉시 소세하여 의관을 정제하고 외당으로 나올 시 홀연 바라보니 제 삼촌나라. 일변 반갑고 일변 놀나와 급히 썰의 내려와 통곡하니 하인들이 다 놀나고 고히 녀여 보더라. 도식 의혹하여 썰의 내려가 붓들고 보니 이는 다르니 아니라 슈연 전 죽었던 죽하 직경이라. 도식 정신니 황홀하여 반갑고 슬픔이 겹발하여 직경을 붓들고 통곡왈, ‘내가 직경인다, 사라나다, 귀신인다.’ 하며 다시 통곡한다가 눈물을 거두고 전후 슈말을 무론디, 직경이 삼촌을 만나니 부모 만남 갖타여 마음이 황홀흔지라. 일희일비하여 말을 못 하다가 이윽고 전후슈말을 고흔디 … (후략).” <월하선전>, 416~417쪽.

30) “즉시 흥인을 명하여 교즈를 티와 임소로 보닉며 직경으로 하여금 그 뒤를 싸르라 흥시고 심각하되 본 집의 통혼즉 티시 그릇되어 공부가 실치 못홀가 하여 괴별치 아니하고 월하선과 직경을 임소의 두게 흥나라.” <월하선전>, 417~418쪽.

럼 두 사람이 갖은 고생 속에서도 자란의 내조를 통해 생활에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두 사람의 굳은 신의를 부각하는 데 더 유리하다. 그럼에도 <월하선전>의 작자가 두 사람의 생활이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감을 부각하려 한 것은 <소설인규옥소전>과 차별성을 두면서 독자들이 두 사람이 온갖 고생을 다 한다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두 사람이 굳건한 신의로 생계를 꾸려 간다는 것에 좀 더 주목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4) 지조와 신의의 결실 및 표창

<소설인규옥소전>에서 전 감사 아들은 한양으로 올라와 과거에 응시하고 장원급제를 한다. 합격자 발표 전 임금은 장원급제자가 전 평양감사 현 이조판서의 아들임을 눈치채고 부친을 불러 아들이 부친의 직함을 대사헌으로 적은 이유를 묻는다. 이조판서는 답안지 필적을 보니 자신의 아들이 맞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종적을 감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어떻게 시험에 응시했는지 영문을 몰라 한다. 임금은 전 감사 아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는 그 일을 기이하게 여기며 이조판서에게 과거의 일을 용서하고 훗날 큰 사람이 되도록 독려하도록 한다. 또한 자란이 산속에 숨어 살면서 그의 과오를 씻게 하고자 책을 구해다 과업에 힘쓰도록 한 점을 가록하다고 칭찬하면서 관기라 하여 천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녀를 정실로 삼도록 하고는, 그 자식들도 청현직(淸顯職)에 오르는 데 구애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다.³¹⁾

31) “上招謂之曰：‘今此壯元者，似是卿之子，而但其父職，以大司憲書之，是何故也？’仍命以試紙示之，生父見之，離席涕泣，而對曰：‘此乃臣之子也。三年前，與友讀書于山寺，一日夜，忽然失之，終莫能得。意其必死於猛獸，故虛葬於寺後，今已闕服矣。臣無他子女，只有此一兒，而才品頗俊秀，意外見失，悼傷之情，至今如一。今見試紙，果是渠之手筆也。當失去之時，臣職叨都憲，故相應以此書之，而實未知渠三年往在何處，今赴此試也。’…(중략)…上深加歎異，下教于生之父曰：‘卿之子，今既悔過勤業，策名立朝，男子少年，暫爲女色所迷，不足深尤，盡赦前罪，更

임금의 이러한 조처는 전 감사 아들과 자란이 기존 유교 사회 테두리 안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 감사 아들은 이로써 기생과의 사랑을 잊지 못해 부모를 저버린 불효자라는 명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여 사대부가의 아들로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 자란은 지극히 고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전 감사 아들이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극진히 내조했음을 온전하게 평가받음과 동시에 사대부가의 정실이라는 큰 은혜를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모친의 신분으로 인해 차대를 받을 수밖에 없을 자식들에 대해서도 높은 벼슬에 오르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파격적인 은혜를 입게 된다. 여기서 임금은 자란의 정절을 굳이 강조하기보다는 전 감사 아들에 대한 그간의 신의와 내조를 부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월하선전>에서는 월하선과 황직경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 전에 황직경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도록 해 놓았다. 황직경으로서는 영원히 자식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의 장벽을 툭툭히 실감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6) 잇썩 시관니 장원을 싸혀보니 세상의 드문 글이여날 여러 시관이 돌여가며 보고 칭찬하다가 비봉을 써혀보니 흐여시되 황직경이라, 흐여거날 황판서 또 시관으로 잇다가 이 글을 보고 이대인 줄 의심 잇는지라. 일변 디회하고 일변 디노 왈, “계 비록 지조 유여흐여시나 성인치 못흐 놈이요, 또한 선영과 부모를 속이고 불효막심흐 놈이라. 이놈을 탐적의 알외고 죽여 너 분을 풀이라.” 하고 글장을 가지고 탐적의 나아가 두고 왈, “금번 장원을 발서 흐시물 바라나이다.” 상이 문 왈, “무삼 연고로 발서하랴 흐는뇨.” 황판서 엇즈오되, “신의 즈식 황직[경]이 불효막심하와 슈연 전의 신을 속이고 도망흐며 종시 찾지 못흐옵기 죽은 줄노 알고 잇습더니 금번 장원 글을 보오니 신의 즈식의 일흠과 연세와 사죄

責後效. 至於紫鸞, 能與之逃匿山中, 其事已奇, 而又能設策補過, 買書勸勉, 其志可嘉, 不可以官妓而賤之, 其令此子, 勿更娶妻, 陞鸞爲正室, 所生之子, 竝通清顯, 勿有所拘, 可也.” <掃雪因窺玉簫仙>, 53~54쪽.

신의 족식일시 분명 하오니 성언치 못흔 거시 막대한 불효를 짓스오니 청명 조정의 이런 거슬 두지 못하을 거시오니 오늘이야 저를 잡앗습과 또 신니 시관의 참예하엿스오니 더욱 격예의 어긋온지라 과거날 밋셔하고 국법으로 다스려 조정 법말 위우시물 바라느이다.” 상이 침음하시다가 “그 글을 올니라.” 하신디 좌우 시관니 즉시 글을 올니니 상이 친히 보시고 서안을 치시며 못느 칭찬하시며 왈, “이 선비는 현인군지라 글을 보니 한퇴지, 소동파라도 이예셔 지느지 못하을 거시오 글시는 왕희지, 조맹부라도 바로 뵈지 못하리라. 글뜻과 글씨를 보니 그 위인을 거의 알지라. 이 선비는 적강하 사람이로라.” 하시고 “즉시 직경을 입시하라.” 하시며 가라사디, “경의 아들의 글을 보니 만고문장이요, 그 위인을 가히 알지라. 나라희 큰 신하를 어더시니 어이 아니 깃부지 아니리요 또 경이 사경으로 시킨 거시 아니라 탁방하 후 죽엇든 족식을 찾고 직경도 과거의 처음이라 시관니 아문 줄 무라고 본 거시니 피츠의 무심하 일이라. 장원되로 주랴.” 하시다.³²⁾

한양에 올라와 과거를 본 황직경은 장원을 차지한다. 마침 시관(試官)으로 함께 있었던 부친 황판서는 이번 장원급제자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임을 눈치챈다. 기쁨과 함께 커다란 분노를 느낀 황판서는 이번 장원 합격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 먼저 황판서는 황직경이 부모를 저버리고 도망하여 부모로 하여금 아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게 한 불효막심한 놈임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렇게 불효막심한 놈이 조정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자신이 시관으로 참여한 시험에 아들이 응시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아들의 과거 합격을 취소하고 국법으로 다스려 나라의 기강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한다.

부친 황판서의 논리는 지극히 현실적이다. 유교 이념을 근간으로 세워진 국가에서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효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조정에 데려다 쓴다는 것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 기강을 무너

32) <월하선전>, 418~420쪽.

뜨리는 일이다. 또한 부친이 시관으로 참여하는 과거 시험에 자식이 응시하는 것은 과거 시험 부정행위로서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다.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들의 과거 합격은 현실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말한 것이다.

이에 임금은 황직경의 글이 만고문장이면서 그 위인을 알 만하다고 하면서 나라에 큰 신하를 얻게 되었으니 기쁜 일이라는 점, 황판서가 처음부터 알고서도 시킨 것도 아니고 황직경 역시 처음 과거를 보는 것이어서 시관이 누구인지 모른 채 응시한 것이니 서로 무심한 일이라는 점을 들며 황직경에게 그대로 장원을 주도록 한다. 임금이 현실적인 위기에 봉착한 황직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부모에게 용서를 받을 구실도 만들어준 것이다. 임금은 황직경이 한때 부모와 아내를 저버린 몸 쓸 자식이었지만 부모로부터 용서받고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장원급제라는 결과를 이루어냈다는 점에 주목하여 황직경이 유교 사회 테두리 안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한 임금은 평안감사에게 월하선을 궁궐로 불러올리도록 한다. 임금은 월하선을 두고 양귀비나 조비연도 미치지 못할 미모이니 성인이라도 마음이 혹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황직경과 월하선의 연분은 하늘이 정한 것이라고 칭찬하는데, 이는 월하선의 미모를 칭찬하면서 황직경과 월하선의 사회적 일탈을 슬며시 눈감아 준 것이다. 그럼으로써 황직경뿐만 아니라 월하선도 유교 사회의 테두리 안으로 복귀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그리고 임금은 월하선을 정렬부인에, 황직경의 정실부인인 최 부인을 정숙부인에 봉한다.³³⁾ 다 알다시피, 정렬부인은 조선시대에 국가가 정조와 지조를 지킨 부

33) “상이 보시고 가라사되, ‘이는 양퇴신 조비연나라도 미치지 못할 거시오 직경이 아니라 비록 성인이라도 혹히리다 저의 연분은 하늘이 임의 정하신 비라.’ 흐시며 칭찬하시고 월하선으로 정렬부인을 봉하시고 최낭주로 정숙부인을 봉하시니 … (후략).” <월하선전>, 421쪽.

녀자에게 내린 칭호이다. 임금은 월하선의 지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렬부인에 봉함으로써 월하선의 희생과 분투, 지조와 신의를 높이 평가하고 국가가 나서 이를 공인해 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황판서가 나이 칠십에 홀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자 월하선은 삼년상을 예를 다해 치르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낸다. 임금은 월하선이 살던 함흥 집에 정려문을 내리도록 한다.³⁴⁾ 이는 효도를 다한 며느리로서 월하선을 형상화하면서 국가가 월하선의 정절과 효를 다시 한번 공인해 준 것이다.

3. 작품 지향과 의미

〈월하선전〉의 작자는 황직경과 월하선이 결연을 이루는 과정을 그리면서 이들의 사랑보다 이들의 사랑이 유지되도록 한 동력을 드러내려 했다. 두 사람 사랑의 중심에 월하선이 있었고, 월하선의 지조와 신의, 극진한 내조 덕분에 두 사람이 결연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그려낸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월하선의 굳은 정절이 있었음을 부각하고자 했다.

먼저 작자는 작품의 지향이 월하선의 정절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작품 전반부에서부터 드러냈다. 월하선 스스로 정절을 지킬 뜻을 분명히 드러냈으며, 월하선과 황직경이 정을 쌓아나가는 과정 서술을 생략하다시피 함으로써 월하선이 정절의식이 강한 여성임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

34) “세월이 오리미 판서의 연세 칠십이라. 홀연 병이 드러 빅약이 무효하니 직경이며 양 부인이 명축의 썸나지 아니하고 의약을 다사리되 종시 차도 업느니라. …(중략)… 직경의 손 잡고 줄히시니 연니 칠십이라. 부인과 직경이 망극하여 통곡하다가 인하여 기절하니 정렬부인니 급히 구하여 삼상예로써 지니고 제사를 정성으로 지니니 이는 세상의 업스 효부러라. 상이 특별이 명하샤 함흥의 월하선 사든 집의 적문하라 하시니 후세 사람이 다 사모하며 공경하더라.” <월하선전>, 422~423쪽.

다. 다음 두 사람의 재회 이후 삶의 과정 형상은 월하선의 굳건한 정절로 수렴된다. 작자는 도피 행각 후 그들이 정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삶의 기반을 마련한 데는 월하선의 신의와 극진한 내조가 뒷받침되었음을 부각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월하선과 황직경이 유교 사회 테두리 안으로 복귀하는 것을 공인하고 표창했다. 임금은 부친 황판서의 요청에도 황직경을 장원급제를 시켰으며, 월하선에게 정렬부인에 봉하고 정려문을 내려주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월하선전>의 작자가 강조한 월하선의 정절의식, 더 나아가 기생의 정절의식 표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황직경과 월하선의 결연 과정에 월하선의 주도적인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앞서 머리말에서 언급한 조광국, 서혜은의 선행 연구는, 조선 후기 문학사의 흐름에서 민중층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그에 따라 이들이 당대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사회 제도의 변혁을 요구하는 데까지 성장해 나갔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다분히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조선 후기 야담 작품들을 통해 민중층들의 의식 성장 양상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성장과 변화된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당시 유교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테두리 밖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테두리 안으로 돌아오는 귀결로 마무리되었지, 유교 사회 자체를 어떤 식으로 바꾸려는 데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두 선행 연구는 당대의 실상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먼저 작품에서 황직경과 남진사의 동침 요구에 월하선이 이를 거절하면서 정절의식을 드러냈다고 하여, 남진사의 난장(亂杖)에도 월하선이 뜻을 결코 꺾지 않았다고 하여,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월하선이 황직경과의 애정을 성취했다고 하여 이 작품을 ‘중세 신분 사회의 질곡에 대한 저항

을 담아내면서 자유로운 애정 욕구와 기녀의 인간적 존엄성 회복에 대한 열망을 드러냄으로써 인간 평등의 근대정신을 구현한 작품'으로 볼 수는 없다. 월하선의 일련의 행위들은 황직경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개인적인 열망과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굳은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당대 사회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게다가 월하선이 관기임을 감안하면, 황직경과 남진사의 동침 요구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으며 여전히 관기 신분이었던 월하선의 위법성이 부각될 여지마저 있었다. 이를 감안할 때, 이 작품은 기녀의 인간적 존엄성 회복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인간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기녀가 당대 소설 향유자들에게 당대 여성들의 애정에 대한 욕구나 욕망 내지는 소망을 부여한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기녀의 사랑을 통해 당대 여성들의 애정에 대한 욕망을 투영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일단 왜 하필이면 기녀를 통해서인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기생 월하선의 행위가 그렇게 이해될 정도의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는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곧 어떤 시대적 열망이나 욕망을 대변하는 존재로까지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느냐는 면에서 의문스럽다. 황직경과 월하선이 애정을 성취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당연히 월하선이다. 그렇지만 월하선은 관기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사대부 집안 남성의 첩이 되기 위한 길을 충실히 닦았으며, 그 과정에서 월하선이 일을 주도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황직경을 내조하는 선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소설인규육소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월하선은 황직경이 다시 가정으로, 유교 사회 테두리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충실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황직경이 유교 사회 테두리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월하선의 행위를 주체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가에 있다. 고전문학 학계에서 특히 조선시대 ‘여성’의 주체성 문제는 여성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으로서 곧잘 언급되고, 당대 사회 변화의 한 징표로서 논의되고는 한다. 사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 비판적인 입장이지는 않지만, 굳이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월하선의 행위는 주체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필자는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 유무와 새로운 시대적 열망 유무와 관계 없이 당대 역사적 ‘개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허용 범주 내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식으로든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인물은 충분히 주체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월하선은 황직경과의 애정을 성취하기까지 자신의 마음과 의지, 상대방의 마음에 따라 주도적으로 움직였으며, 그 과정의 진행도 주도했다. 또한 황직경이 유교 사회의 테두리 안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자임하고, 그 과정에서 관기로서 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길을 충실히 닦았다. 월하선은 당대 역사적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간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18~19세기에 한문 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인물 구도가 “상층 남성과 하층 여성의 구도로 신분 계급 서사가 재편되”고, “하층 여성은 신분과 젠더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임에도 수동적이지 않고 남녀 관계를 주도적으로 진전시키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있다.³⁵⁾ 그리고 “여성 주인공의 적극적 면모는 오히려 남성 중심으로 구축된 세계와 제도에 인정받고 편입되려는 보수적 여성상의 환상을 서사적으로 표현한 대리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³⁶⁾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비단 한문소설뿐만 아니라, 한글소설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중 몇몇 작품에서 여성 주인공이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자신의

35) 한의승, 「욕망 분출과 인정 투쟁으로 독해하는 19세기 한문소설에 대한 시론」, 『민족문학사연구』 90, 민족문학사연구소, 2026, 212쪽.

36) 위의 논문, 216~217쪽.

의지와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절’을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층 남성과 기생과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로 널리 이해되고 있는 <춘향전>의 춘향도 그렇거니와 적어도 1900년 이전에는 창작³⁷⁾된 것으로 보이는 <옥단춘전>의 옥단춘 역시 그러하다. 여기에 <월하선전>의 월하선 모습 역시 춘향, 옥단춘의 모습과 비슷하다.

<월하선전>은 19세기 문학사를 이해하는 데 해명되어야 할 새로운 과제로서 19세기 소설 작품에서 여성 주인공이 자신의 의지 표출과 목적 달성을 위해 ‘정절’을 내세우는 현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춘향전>을 필두로 하여 <광한루기>, <포의교집>, <낙동야언>, <월하선전>, <옥단춘전> 등 여러 작품에서 공통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작자가 보수적인 시각에서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치부하고 말기는 어려운 19세기 소설사의 중요한 현상으로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절’은 지배계층에서 이야기하는 ‘정절’의 개념과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가, 그들의 표방하는 ‘정절’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점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들이 ‘정절’을 표방하는 현상이 지배계층의 이념을 ‘전유(專有)’한 결과인가, 그와는 별개로 ‘표상’으로서 개념을 빌려온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찰되어야 할 듯하다.

결국 19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으로서 상층 남성과 하층 여성(기생)이 어떤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하층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절’을 활용하는 양상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월하선전>은 단순히 <춘향전>의 아류작이 아니라, 19세기 소설사의 한 양상을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다.

37) 국립중앙도서관에 필사 시기가 1900년으로 되어 있는 <옥단춘전> 필사본이 존재한다.

4.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월하선전>의 사건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고, 작품의 지향점과 의미를 논의해 보았다.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월하선전>의 작자는 황직경과 월하선이 최종 결연을 이루는 과정을 그리면서 월하선의 지조 부각,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신의 재확인, 비교적 운이 따르는 생활, 지조와 신의 결실 및 표창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럼으로써 그 중심에 월하선이 있었고, 월하선의 지조와 신의, 극진한 내조가 바탕이 되었음을 드러냈다. 또 작자는 작품 전반부에서 월하선의 정절 의식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두 사람의 재회 이후 삶의 과정 형상이 월하선의 굳건한 정절 의식으로 수렴됨을 보이고, 국가에서 월하선과 황직경이 기존 유교 사회 범주로 복귀하는 것을 공인하고 표창함을 보임으로써 작품 전편을 통해 월하선의 굳은 정절 의식을 강조하려 했다.

19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으로서 몇몇 한글소설 작품에서 상층 남성과 하층 여성(기생)이 어떤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하층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정절’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월하선전>은 19세기 소설사의 한 양상을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때, 하층 여성 주인공이 자신의 의지와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정절’을 도구로 활용하는 양상과 관련하여 그 ‘정절’에 함축된 의미, ‘정절’ 활용의 편쪽, 이러한 양상의 시대적 의미 등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추후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 〈소설인규옥소선(掃雪因窺玉簫仙)〉, 『천예록(天倪錄)』.(정환국 책임편집, 『교
감표점 정본 한국야담전집 2: 천예록 매옹한록 이순록』, 보고사, 2025).
- 〈월하선전(月下僊傳)〉, 한글 필사본, 고려대 소장본.(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
소설전집 21』, 아세아문화사, 1980).
- 이강용, 「교주 「월하선전(月下僊傳)」」, 『배달말』 10, 배달말학회, 1985, 333~348
쪽.
- 임방 지음, 정환국 옮김, 『천예록』, 보고사, 2023, 1~312쪽.
- 서혜은, 「고전소설에 나타난 기녀의 애정 성취 기반과 그 의미」, 『어문론총』
42,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217~244쪽.
- 장예준, 「〈월하선전(月下僊傳)〉의 하이퍼텍스트성(hypertextuality)」, 『한국문
학이론과 비평』 10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6, 219~241쪽.
- 조광국, 「「월하선전」 연구」, 양포이상택교수환력기념간행위원회, 『한국 고전소
설과 서사문학(상)』, 집문당, 1998, 627~655쪽.
- 조광국,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285~303쪽.
- 한의승, 「육망 분출과 인정 투쟁으로 독해하는 19세기 한문소설에 대한 시론」,
『민족문학사연구』 90, 민족문학사연구소, 2026, 207~236쪽.

ABSTRACT

Aspects of Event Representation and the Work's
Orientation in 〈Wolhaseon-jeon(月下僊傳)〉

-In conjunction with a comparison with
〈Soseol-ingyu-ogsoseon(掃雪因窺玉簫仙)〉-

Jang, Ye-jun

This paper discusses the aspects of event narrative, the thematic direction, and the significance of Wolhaseon-jeon.

The author of Wolhaseon-jeon depicts the events unfolding in the process of the final union between Hwang Jik-gyeong and Wolhaseon, focusing on four key aspects: highlighting Wolhaseon's fidelity, reaffirming the love and trust between Wolhaseon and Hwang Jik-gyeong, depicting their relatively fortunate life, and illustrating the fruition and public commendation of their fidelity and devotion. Furthermore, the author concentrates on revealing Wolhaseon's sense of chastity in the first half of the work, shows that the depiction of their life journey after their reunion in the middle part converges upon her unwavering commitment to chastity, and demonstrates in the latter part that the state officially recognizes and rewards their reintegration into the traditional Confucian social order. Through this structure, the author aims to emphasize Wolhaseon's steadfast sense of chastity throughout the entire narrative.

As a specific phase in 19th-century fiction history, certain vernacular Korean (hangeul) novels, such as Chunhyang-jeon, Wolhaseon-jeon, and Okdanchun-jeon, exhibit a pattern where lower-class women (gisaeng) utilize chastity to enforce their own will and objectives while forming relationships with upper-class men. The concrete manifestations, contemporary significance, and literary-historical implications of this phenomenon warrant in-depth discussion. Wolhaseon-jeon does not

merely remain an imitation of Chunhyang-jeon; rather, it holds significance as a work that can be utilized to comprehend a distinct facet of 19th-century novel history.

Key Words <Wolhaseon-jeon(月下仙傳)>, ogsoseon(玉簫仙) story, <Soseol-ingyu-ogsoseon(掃雪因窺玉簫仙)>, ogsoseon(玉簫仙), Sense of chastity, fidelity, providential, 19th-Century Novellas and Short Stories.

논문투고일: 2026.06.30. 심사완료일: 2026.08.10. 게재확정일: 2026.08.13.
--